

# “상품도 받고 잘 몰랐던 5·18도 많이 배웠어요”



전원 정답 맞췄다가 대거 탈락도 '이한열·전태일' 열사 오답 눈길 1등 김세은양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1등의 비결이었어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퀴즈를 풀어 최후의 1인을 가려내는 ‘찾아가는 민주역사 골든벨’이 목포유달중학교에서 울렸다.

전남서부보훈지청은 지난 24일 목포유달중 유달관에서 1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골든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대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유나 목포유달중 교감, 정현태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5·18의 의미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대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문학교의 역사는 학생 여러분들이 만들어간다. 우리나라 역사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재호 선생의 말을 떠올려달라”며 “5·18을 경험한 바가 없지만 이번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를 배우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이유나 목포유달중 교감 또한 “이번 골든벨 행사를 계기로 깨어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양홍석 여수고 교사가 힘차게 시작을 알리자 목포유달중 학생들은 한 손에는 보드마기를, 한 손에는 책을 쥔 채 도전정신을 불태웠다.

OX로 치러진 예선전에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문제에 참가자 전원이 정답인 O를 써내 학생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준으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집회 시위가 계속됐다’는 2번 문제에서 참가자의 1/3만이 정답인 X를 맞춰 탈락자가 대거 속출했다.

이후 알쏭달쏭한 예선 문제가 이어지면서 5명만이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패자부활전에서 학생들은 의기투합하며 다시 도전의 기회를 노렸다. 총 3번의 문제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며 탈락자석으로 다시 돌아간 친구가 있는가하면 정답을 맞춰 본선 진출석으로 신나게 달려가



골든벨 우승자 3학년 김세은 학생.



목포 유달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 24일 학교 체육관에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주제로 열린 찾아가는 민주역사 골든벨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정답을 들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남서부보훈지청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김양배 기자

는 학생들도 있었다.

패자부활전으로 60여명의 친구들이 본선에 합류해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

단답형으로 진행된 본선에서는 정답 행진 속에서도 다양한 오답이 나오면서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문제로 제시된 5·18 당시 광주 시내에서 아주머니들이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주먹밥’이 기억나지 않아 ‘빵’이나 ‘태극기’로 써 쓸쓸하게 탈락하거나 ‘친구들이 미안해’라는 유쾌한

멘트로 웃음을 주기도 했다.

특히 목포의 5·18항쟁 지도자로 활동했던 ‘안철’이나 광주에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현현하고 나오던 중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박금희’ 양을 묻는 문제에서 유명 노동운동가인 ‘전태일’이나 민주열사 ‘이한열’ 등을 적어내 학생들의 투철한 역사의식이 빛나기도 했다.

고난도 문제를 거친 끝에 수상자 5명이 탄생했으며 이 중 최후의 1인으로 김세은 양이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다.

수상 학생은 △대상 김세은양 △최우수

상 정원아양 △우수상 박승우군 △장려상 조하경군·박서연양이 선정됐으며, 문화상품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됐다.

1등의 영예를 안은 김세은양은 “오늘 퀴즈를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책을 열심히 뒤져가면서 정답을 맞춘 보람이 있었다”며 “상품도 받고 잘 몰랐던 5·18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 광주·전남 비 영향으로 기온 낮아져 ‘쌀쌀’

### “해상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

월요일인 27일 광주·전남은 전날부터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하겠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 새벽까지 내린 비가 그친 후 찬 공기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낮 기온이 2~5도가량 떨어지겠다.

특히 28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4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다.

27일 아침최저기온은 14~18도, 낮최고 기온은 21~26도가 되겠다.

28일 아침최저기온은 12~16도, 낮최고 기온은 22~27도로 예측됐다.

바람은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서해남부면바다를 중심으로 해상에는 바람이 32~45km/h(9~13m/s)로 강하게 불겠다.

파도도 1.5~2.5m로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27일까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남해상에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

## “음주단속 합니다”... 예고에도 전남서 25명 덜미

### 단속 시작 하루 만에 취소 11건·정지 14건

전남경찰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선포했지만 단속 하루만에 2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전남경찰청 주관으로 야간에 동시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밤 12시까지 3시간 만에 전남지역에서 25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취소 11건에 정지 14건이다.



경찰은 음주단속 계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391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매달 1회 이상 주야불문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서별로는 주 2~3회 이상 스팟식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 요동치는 의료계

### 내년 의대 입학정원 1509명 늘어 의협 “의료과국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 “증원 의대 협조해 대입 준비”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509명 늘리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증원 반대’를 고수하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료계는 공보의·군의관 차출, 의대생 유급·전공의 면허정지 등 의료공백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지난해보다 의대 40곳의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지역에선 △전남대 163명 △조선대 150

명이다. 대교협의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각 대학이 31일까지 입시 요강을 공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만다. 의료계의 외침을 외면한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에서는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공보의·군의관 차출 등으로 생긴 취약지에 대한 관심·지원을 촉구했다.

영광 한 2차병원 응급의료과장은 “적은

인구에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지역 보건소·지소 공보의가 차출되면서 야간진료가 멈추는 등 의료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은 아직이다”고 꼬집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45명의 공보의가 대형병원 진료현장으로 차출돼 현장을 떠났다. 전남도는 순회진료 등을 늘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국민 지지와 의료진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성현 기자

## 올해 데이트폭력 4400명... 구속은 1.9% 그쳐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죄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

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에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